

# 국제결혼 부부의 초국적 이주배경에 대한 공간인지와 적응에 관한 연구\*

이 경 자\*\*

## A Study on the Spatial Cognition and the adjustment of Intermarriage Couples Regarding Transnational Migration Backgrounds\*

Lee, Kyung Ja\*\*

**요약** : 1990년대 이후 초국적 이주에 의한 국제결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접근방법 등의 한계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배경 및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 국제결혼 부부 대상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이주배경과 적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이주배경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국제결혼 부부의 세계적 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거시적 배경은 부부 적응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삶과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방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는 부부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초국적 이주, 국제결혼 부부, 초국적 이주배경, 적응

**Abstract** : Since the 1990s, the international married couple, who were transnational migration has increased, therefore,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this approaches in the meanwhile, but enough analysis is not being done on the background of female marriage migrant and th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because there is limits of the approach method. With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this study is about the analysis on the background and adaptation of them, based the data of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argeted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in the area of Daegu and Gyeongbuk. The result of analysis survey on background of international migration was very high level about the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global thinking, and analyzed this macro-background does not affect much about the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daptation.

However, this study were analyzed that the advance cognition degree to the other side, which are expected affect directly to the life and adaptation of all the couples is very low level.

**Key Words** : transnational migration, transnational couples, transnational migration background, adaptation

### 1. 서론

오늘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수렴화로 국민국가의 영역적 경계성이 약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국경을 뛰어넘어 이동하는 자본, 사람, 물자,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지구·지방화와 국가 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에 따른 격차의 확대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임금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간을 이동하는 초국적 이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이주는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리적 이동성

과 원격지 간 의사소통의 가능성 증대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교류의 확대로 인종적·문화적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동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에 직면하고 있고(이동수·송승숙, 2012, 135), 출신국가와 지역을 떠나는 이주자들이나 이들이 유입되는 국가나 지역의 원주민들도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최병두·이경자, 2010, 64).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35C-2011-2-B00483).

\*\* 동국대학교(경주) 강사(Lecturer, Dongguk University)(Gyeongju)

에 대한 논의와 담론들도 사회공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이주 연구는 배출-흡인(push-pull)의 현상위주로 설명되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이 현상에 의해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이주자의 민족적 연결을 강조하는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적 이주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초국가주의는 최근 국제이주의 설명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론으로 과거에 비하여 현재의 이주자들은 정착지에 적응함과 동시에 기원지와의 적극적 연결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함을 강조한다(이용균·이현욱, 2012, 60에서 재인용).

2010년 전 세계의 이주자는 약 2억 14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1%가 국제 이주자로 간주되며, 이중 약 30%는 아시아로의 이주로 추정되고 있고(IOM), 한국으로의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득수준의 향상, 고학력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결혼대상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급증하였고, 글로벌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위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교육의 글로벌화를 경험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국내 거주 총 외국인 수는 1,445,103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결혼이주자 수도 148,498명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크게 주목 받아 온 사회적 관심사 중의 하나가 '다문화'로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및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배타적이다. 특히 국제결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남아권 여성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여성들이 빈곤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단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취업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사회에 진입했다는 사회적 불신으로 비우호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이

혼, 산업견과 차별 등으로 한국에서의 적응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을 통한 해외 이주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신희천 등, 2011, 300),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전체 결혼이주자 중 여성이 약86%(127,540명), 남성은 약 14%(20,958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에 있어서 특징은 한국 내 결혼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농어촌, 도시 저소득 층 출신의 한국인 남성이 경제력이 약한 아시아권 국가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남성의 외국인 아내의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을 비롯해 구소련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 배경과 원인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을 매개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일반화 되면서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한국사회 적응과 문화적 갈등, 결혼생활 적응 등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큰 연결고리, 즉 결혼이란 제도의 관계성을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은 성인 남녀와 그 가족의 양 방향성의 합동적 행위이며,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의존자이자 지지자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이라는 특별한 선택을 한 남성들은 그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가려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가정불화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에는 결혼해체를 경험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김민경, 2011; 구치순·박순자, 2012). 이에 이주여성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들 이주자들의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주의 거시적 배경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족적 차원의 미시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편들도 결혼을 결심하기 전 이들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거시적 배경뿐만 아니라 미시적 배경에 대한 인지정도가 결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국제이주의 거시적(즉 세계적, 국가적)배경과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미시적(즉 개인적, 가족적)배경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초국적 이주의 거시적 배경에 관한 접근은 추상적 이론 또는 개념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초국적 이주자(여성결혼이주자)와 남편들의 인지조사에 근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국제이주가 일어나기 전 이주의 거시적 배경으로서 세계적 상황, 출신국의 국가적 배경, 출신지역의 배경, 이주 유입국으로서 한국의 배경에 관한 인지를 분석할 것이며, 미시적 배경으로서 이주 전 개인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여성결혼이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세계적 배경 및 송출국인 부인의 출신국가에 대한 인지, 결혼 전 여성결혼이주자의 가족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 미시적 환경에 대한 사전 인지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을 비롯해 지역생활 전반에 관한 적응 및 가족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국제결혼 부부, 즉 다문화 가정 부부들의 초국적 이주와 관련한 거시적·미시적 배경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은 물론 여성결혼이주자와 결혼한 남성들의 적응과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부 가운데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한계를 넘어, 결혼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결혼 부부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부부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동향

인간이 특정 지역에 정착생활을 하게 된 이후 다양한 이유들로 지역을 옮겨 살게 되었으며,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세계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국가를 옮겨 살게 되는 초국적 국제이주에서 그 배경과 주체는 이주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국제이주를 실행한 이주자들은 세계적인 상황과 국가 간의 상황 등과 관련된 구조적 배경 하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최병두·송주연, 2009, 296). 이러한 국제 이주 및 그 정착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제시되었다(Harvey, 1996; 최병두·이경자, 2010, 66~69).

또한 이러한 국제이주의 배경과 정착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초국가주의는 외국인 이민자들이 출신국가와 정주국 간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계망의 형성과 유지과정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이주의 연쇄 및 정착과정에서의 생활양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로 최재현(2007, 2)은 초국가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공간적 메커니즘과 특성을 파악하면서, “국제결혼 이주를 통해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에 공간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이용균(2007)은 초국가주의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초국적 민족문화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국제이주가 완전히 구조적 차원에 의해 규정되거나 또는 반대로 개별 이주자의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주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에이전시(agency)를 강조함으로써 구조/행위 차원을 결합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최재현(2007)은 국제결혼이주가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같은 에이전시에 의해

집단적,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현주(2009)는 이러한 “에이전시의 재조명은 구조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개인의 ‘차별화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박경환(2009)은 초국가주의는 국제 이주와 정착과정이 장소-기반적 사회문화적 관계에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는 공간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제3의 공간’, ‘사이 공간’ 등의 공간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측면을 강조하여 명시화하기 위해 ‘다문화사회’ 대신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이라는 용어가 제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최병두, 2009), 박배균(2009)은 제습 등(Jessop *et al.*, 2008)이 제시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이론화에 근거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 분석에 보다 명시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공간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이주 배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는 최송식 등(2008), 박은경(2009), 안영진(2009), 최병두·송주연(2009), 최병두·이경자(2010) 등이 있다. 국내에 이주, 정착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국제결혼이주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이주 현황 및 적응과정의 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중앙정부의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관련 연구소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자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국제결혼이주는 특히 정착지의 사회적 변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결혼이주를 앞서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소개한 연구들(황달기 1993; 김윤태·설동훈 2005; 박동성 2008), 한국으로 결혼이주러 오는 배경이나 경로, 인식을 다룬 연구들(김현재 2007; 임형백 2007; 김수정·김은이 2008; 김현미 등 2008; 송유진 2008; 김근식·장윤정 2009; 임석희 2009a; 최병두 2009, 2010; 김동엽 2010;

장한나·윤기찬, 2010; 채옥희 등, 2011)이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연구의 주류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차지하고 있다. 예로 윤형숙(2005), 김두섭(2006), 김민정 등(2006), 김오남(2006), 김이선 등(2006), 채옥희·홍달아기(2008), 한건수(2006), 김민정(2007), 김희주·은선경(2007), 박주희·정진경(2007), 설동훈·윤홍식(2008), 정천석·강기정(2008), 김한곤(2009), 박은미·이곤수(2009), 임석희(2009b), 조현미(2009), 김민정·신성만(2010), 김순규·이주재(2010), 김한나·박혜원(2011), 최병두(2010), 박순희(2011), 조민경·김렬(2011), 한윤희 등(2011) 등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전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국제이주 증가로 인한 국제결혼은 한국사회의 결혼과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전체 국제결혼 사례 중 외국인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은 2012년 말 현재 86%를 차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결혼이민여성의 측면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정작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들에 대해서는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김오남 등(2008), 채옥희·홍달아기(2008), 강기정·변미희(2009), 김민정(2009), 이근무·김진숙(2009), 최지영(2009), 노충래 등(2010) 연구가 있으며, 김두섭(2012)은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혼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적응 및 부부적응 그리고 긴장과 갈등, 결혼만족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제결혼 남성의 결혼해체 과정을 다룬 김민정(2011), 구차순·박순자(2012)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주자들의 이주배경과 적응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적응과정을 단순히 일면적 전개과정에서 주어지는 문제와 대응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결혼이란 성인 남녀와 그 가족의 양 방향성의 합동적 행위이며,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그 ‘관계성’을 고려한 복합적인 구조적 배경과 사회공간적 조건들에 관한 심층적 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3. 연구자료 및 방법

#### 1) 연구자료

한국은 오랫동안 인종/민족적 동질성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의 급증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다민족/다인종의 복합 문화 또는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이주는 전통적으로 동질성이 문화적 특성인 이 나라에 심각한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국내 거주 총 외국인 수는 1,445,103명으로 이 중 결혼이주자 수는 148,498

명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국적별·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63,035명(한국계 중국인 27,895명 포함), 약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순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이 아시아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86%, 남자가 14%로 여성결혼이주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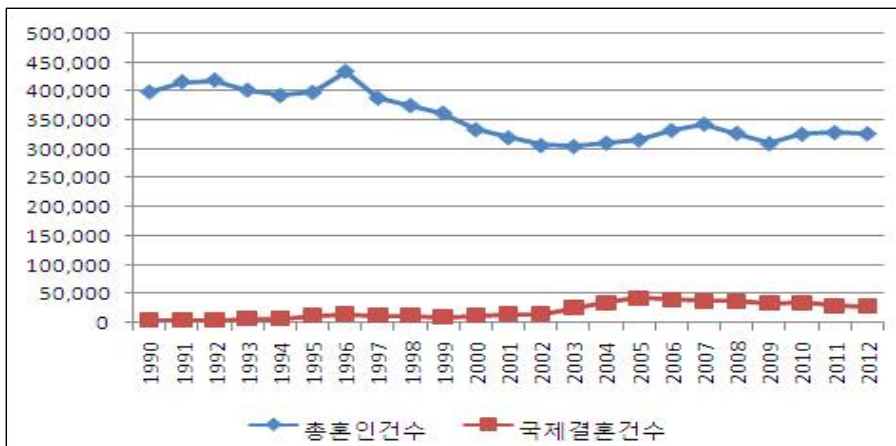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은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 출신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다. 국제결혼 건수를 보면 1990년 4,710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1.2%에 불과 하였으나, 1995년 3.4%, 2000년 3.7%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에는 11.4%로 10%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42,356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2008년 11.0%(36,204건), 2010년 10.5%(34,235건), 2011년 9.0%(29,762건)이며, 2012년에는 8.7%(28,325

표 1. 결혼이주자의 국적별·성별 현황

(2012.12.31. 현재, 단위: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포함)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 체	148,498	63,035	27,895	39,352	11,746	9,611	4,541	2,618	2,395	15,200
남 자	20,958	11,815	7,699	284	1,129	277	6	50	69	7,328
여 자	127,540	51,220	20,196	39,068	10,617	9,334	4,535	2,568	2,326	7,872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2.12.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그림 1. 국제결혼의 추이

건)로 2005년에 비해 14,031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대구·경북지역의 국제결혼 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지역의 경우 2000년에 29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1,280건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295건으로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나 2010년 1,029건, 2012년 957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은 2000년 434건에서 2005년에는 1,659건으로 증가하였고, 경북지역 역시 2006년 2,070건을 정점으로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1,601건, 2012년 1,317건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지역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 11.2%(506명), 여자 88.8%(4008명)로 여성의 비율이 월

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인,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순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은 성별로는 남자가 5.8%(430명), 여자 94.2%(7,040명)로 전국의 성별분포(남:14%, 여:86%)와 비교해 볼 때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한국계중국인, 일본, 캄보디아, 타이, 몽골 순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45.3%(3,386명)로 타 지역(전국 26.5%)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의 25.1%(1,878명)보다도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연구방법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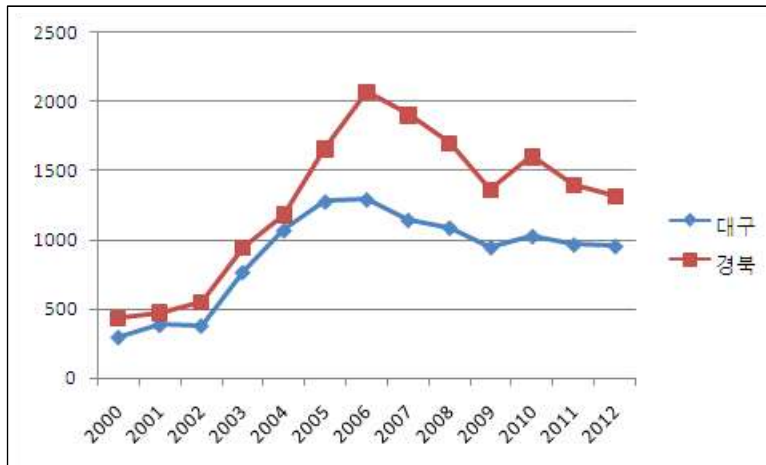


그림 2. 대구·경북 국제결혼 혼인건수

표 2.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자 현황

(2012.12.31 현재, 단위: 명)

국적 지역	합계	국적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인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우즈베키스탄	기타	
대구	계	4,514	1,589	1,030	458	274	230	280	55	31	84	483
	남	506	10	80	86	27	5	0	0	1	2	295
	여	4,008	1,579	950	372	247	225	280	55	30	82	188
경북	계	7,470	3,386	1,290	588	465	613	419	122	93	92	402
	남	430	16	88	93	31	6	0	1	1	1	193
	여	7,040	3,370	1202	495	434	607	419	121	92	91	209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의해 재구성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포 또한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연구의 범위는 무척이나 광범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외

국인 이주자 유형 중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주자와 그 배우자인 국제결혼 남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 지역도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국제결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초국적 이주배경

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단위: 명, (%)

응답자수		계	대구				경북			
		87 (100.0)	55 (63.2)				32 (36.8)			
국적	아내	계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87 (100.0)	13 (14.9)	18 (20.7)	28 (32.2)	2 (2.3)	12 (13.8)	12 (13.8)	2 (2.3)	
연령	아내	계	25세 이하		30세 이하	35세 이하	40세 이하		41세 이상	
		87 (100.0)	16 (18.4)		29 (33.3)	22 (25.3)	16 (18.4)		4 (4.6)	
	남편	계	40세 이하			45세 이하		46세 이상		
		87 (100.0)	12 (13.8)			22 (25.3)		53 (60.9)		
학력	아내	계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전문대 포함)	
		87 (100.0)	10 (11.5)		6 (6.9)		49 (56.3)		22 (25.3)	
	남편	계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전문대 포함)	
		87 (100.0)	13 (14.9)		14 (16.1)		50 (57.5)		10 (11.5)	
종교	아내	계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	없음	기타	무응답		
		87 (100.0)	33 (37.9)	10 (11.5)	2 (2.3)	38 (43.7)	2 (2.3)	2 (2.30)		
	남편	계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	없음	기타	무응답		
		87 (100.0)	34 (39.1)	8 (9.2)	4 (4.6)	41 (47.1)	.	.		
결혼기간	계	5년 이상		4년	3년	2년		1년 미만		
	87 (100.0)	47 (54.0)		14 (16.1)	12 (13.8)	12 (13.8)		2 (2.3)		
아내의 한국국적 취득여부	계	국적취득				국적취득 안함				
	87 (100.0)	42 (48.3)				45 (51.7)				
현재 직업	아내	계	농어업	단순 생산직	단순 사무직	판매 유통직	서비스직	영어 강사	미취업	기타
		87 (100.0)	16 (18.4)	15 (17.2)	2 (2.3)	4 (4.6)	14 (16.1)	2 (2.3)	28 (32.2)	6 (6.9)
	남편	계	농어업	단순 생산직	전문직	판매 유통직	서비스직	공무원	기타	
		87 (100.0)	26 (29.9)	35 (40.2)	8 (9.2)	8 (9.2)	4 (4.6)	4 (4.6)	2 (2.3)	

에 대한 공간 인지와 적응에 관하여 분석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8월부터 9월 말 기간 동안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지역사회복지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어교사와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등의 도움을 받아 면접 또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지역 각각에 대해 국제별 분포비율에 따라 국제결혼 부부 240쌍(대구: 120쌍, 경북: 120쌍)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응답률이 낮아 98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이나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 11쌍을 제외한 87쌍(174부)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한국의 국제결혼 부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자료수집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3>과 같다.

#### 4. 초국적 이주배경에 대한 인지

##### 1) 세계적 배경에 대한 인지

오늘날 국제이주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여성의 국제이주가 남성 못지않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은 이러한 여성의 국제이주를 이루는 주요한 통로이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에 관한 연구 또한 이주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이론의 하나인 배출-흡인 모형에서부터 최근 젠더와 여성주의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행위자적 측면 또는 구조적 측면에서 국제결혼 이주에 대해 거시적 혹은 중범위적, 미시적 차원의 의미 있는 설명을 한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제결혼 이주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에 관한 여러 이론이나 설명 틀 가운데 배출-흡인 모형(push-pull model)은 가장

전통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흡인 모형은 이주의 원인을 유출지역에서의 높은 인구 성장, 낮은 생활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과 정치적 억압등과 같은 배출요인과 유입지역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 토지의 이용 가능성, 양호한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자유 등의 흡인 요인의 결합으로 본다. 데이빈(Davin, 2007)은 중국과 동아시아 여성의 결혼이주를 고찰하면서 배출요인으로 무역과 노동이주로 인한 지역 간 접촉의 확대, 더 나은 조건의 지역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그 지역과의 소통 개선, 빈곤지역의 지속적 존재와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젊은 여성의 욕구, 더 잘사는 지역에 딸을 둔 가족의 이점 등을 들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초국적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정치적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주자 개인들은 이러한 거시적 구조의 조건들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정하면서 이주는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및 정착의 배경은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소득 격차의 확대와 이주에 대한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공간적 제약의 완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 증가 경향은 이들이 본국 가족을 돕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박순호 등(2012)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결혼 전·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세계적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이동의 증가 정도,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지표로 세계적 배경에 대한 국제결혼 부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남편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36.8%, 40.2%로 77.0%가, 아내의 경우 각각 25.3%, 56.3%로 81.6%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점 척도 값도 남편 4.09, 아내 4.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



편과 아내 모두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송출국인 아내나라와 유입국인 남편나라의 경제적 발전의 수준차이가 배출-흡인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불균등발전에 의한 국가 간, 지역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에 의한 배출/흡인 요인이 작용하고, 상호보완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지역 간 흐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이주는 물론 지역 간 물자, 정보, 사람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수송가능성, 즉,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매우 그렇다’ 46.0%, ‘그렇다’ 36.8%로 응답자의 82.8%가, 아내의 경우 ‘매우 그렇다’ 27.6%, ‘그렇다’ 58.6%로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5점 척도 값도 남편 4.26, 아내 4.1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부부 모두 세계적으로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은 물리적 거리의 마찰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원격지 간 정보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공간적 압축현상을 초래하고,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세계적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초국적 이주에 의한 국제결혼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발달은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고, 국제이주는 상품과 자본의 세계적 이동 증

가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최병두, 이경자, 2010, 73).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이동 증가와 관련한 국제결혼 부부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매우 그렇다’ 36.8%, ‘그렇다’ 56.3%를, 아내의 경우 ‘매우 그렇다’ 27.6%, ‘그렇다’ 51.7%를 나타내고 있으며, 5점 척도 값으로 남편 4.30, 아내 4.07로 아내에 비해 남편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상품과 자본의 이동의 증가 등과 함께 국제이주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이주 현상에 대해 최근 국제이주가 일반화 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의 응답결과를 보면, 남편의 경우 ‘매우 그렇다’ 25.3%, ‘그렇다’ 41.4%이며, 아내의 경우 ‘매우 그렇다’ 25.3%, ‘그렇다’ 44.8%를 보여주고 있고, 5점 척도 값은 남편 3.77, 아내 3.9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의 세계적 사항, 즉 국가 간 경제수준 차이(남편:4.09, 아내:4.05),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남편:4.26, 아내:4.11), 상품과 자본의 세계적 이동(남편:4.30, 아내:4.0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비록 2012년 현재 세계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 2억 만 명이 넘는 인구의 국제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화 되었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그림 3).

다음 이러한 세계적 사항에 대한 인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대구지역에 비해 경북지역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응답결과는 도시지역 거주



그림 3. 세계적 사항에 대한 인지

표 4. 지역별 세계적 사항에 대한 인지

세계적 사항	남편		아내	
	대구	경북	대구	경북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3.96	4.31	3.78	4.50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4.07	4.53	3.89	4.50
상품과 자본의 이동의 증가 정도	4.25	4.38	3.89	4.38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3.71	3.88	3.93	3.97

주: 전혀그렇지않다=1점, 별로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 부여, 이하 동일함.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자에 비해 농촌지역의 거주자들이 농촌지역이라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세계화 현상(세계적 사항)과 자신들의 거주지역과의 격차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아래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례 1]** 시골이라 교통도 불편하고, 마을 하기도 떨어져 있어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다. 시장에 가도 마음에 드는 예쁜 옷도 살 수 없고, 쇼핑할 곳도 없어 여러 가지로 속상한다. 도시에 사는 친구는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간다고 했다. 본국에서 온 다른 친구랑 만나서 가끔 같이 쇼핑도 한다고 했다. 도시지역이 교통이 편리해서 사람 만나기도 쉽고, 쇼핑하기도 좋고 생각한다(베트남 출신, 28세, 고졸, 과수원에 단독 거주).

한편 아내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 간 경제발전의 수준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 5점 척도 값 4.22로 가장 높고, 대부분 4.00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 출신만이 3.69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계 중국인과는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관한 설문의 응답결과를 보면 베트남이 4.36으로 가장 높고, 캄보디아가 4.33으로 다음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이 3.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상품과 자본의 이동의 증가 정도에 관해서는 몽골이 5.00으로 가장 높고 다음 베트남 4.14, 한국계 중국인 4.11 순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이 3.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에 관한 설문에서는 몽골이 5.00으로 가장 높고, 필리핀 4.33, 일본과 캄보디아가 4.00으로 높으며, 베트남이 3.7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표 5). 이러한 응답결과는 본 설문에 응한 응답자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국제결혼 이주자들의 전체적인 경향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가적 배경에 대한 인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국제이주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직접적으로 출신국의 국가적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결혼이주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제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출신국가 및 지역의 여러 요인들이 가

표 5. 아내의 국적별 인지(5점 척도 값)

세계적 사항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3.69	4.22	4.07	4.00	4.17	4.00	4.00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4.00	3.89	4.36	4.00	3.83	4.33	4.00
상품과 자본의 이동의 증가 정도	4.00	4.11	4.14	4.00	3.83	4.00	5.00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3.85	3.89	3.75	4.00	4.33	4.00	5.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지는 영토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거나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최병두·이경자, 2010, 76). 남편 또한 아내의 출신국가가 어느 나라이고, 그 국가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국제결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그들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가정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은 송출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의 국가적 상황에 대해, 아내에게는 본국의 국가적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적 수준, 좋은 직장, 정치적 상황, 사회복지수준, 물질문화 발달 정도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에서 남편의 경우 '매우 그렇다' 25.3%, '그렇다' 51.7%로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77%를 차지하는 반면, 아내의 경우 '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62.1%로 69%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내가 자신의 출신국가인 본국에 대해 인지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의 출신국가에 대해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로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편의 아내 출신국가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못사는 나라에서 돈에 끌려왔다는 인식하에 아내를 상품이나 소유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관념을 갖게 하고, 결국은 결혼해체에까지 이르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보여 진다.

다음 '좋은 직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항목에서 남편은 '매우 그렇다' 23.0%, '그렇다' 50.6%, 아내의 경우 '매우 그렇다' 11.5%, '그렇다' 49.4%로 보여주고 있으며, 5점 척도 값으로 남편 3.90, 아내 3.49로 이 문항 역시 아내 보다 남편이 아내의 출신국가에 대해 '좋은 직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남편은 4.6%인 반면, 아내의 경우 18.4%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다른 국가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응답 결과를 보면 남편의 경우 '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37.9%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내의 경우 '매우 그렇다' 2.3%, '그렇다' 16.1%인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2.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5점 척도 값으로 남편은 3.38, 아내는 2.84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최병두·이경자, 2010, 7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불안정'은 일부 국적의 국제이주자들을 제외하고는 국제 이주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국가적 배경으로 '사회복지 수준(교육, 의료보건 등)이 낮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아내('매우 그렇다': 11.5%, '그렇다': 48.3%, 5점 척도: 3.55)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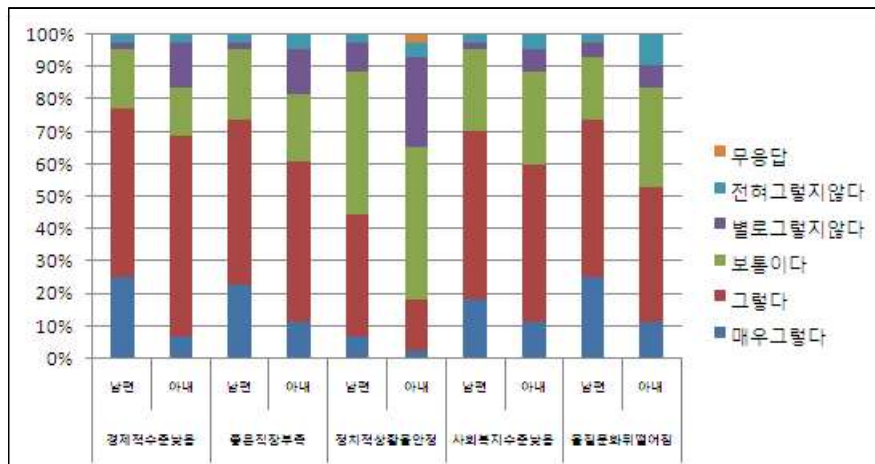


그림 4. 국가적 배경에 대한 인지

표 6. 한국에 대한 여성결혼이주자의 인지

국가적 사항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사회복지수준이 높은 나라	물질문화가 앞선 나라
5점 척도	4.10	3.61	3.91	3.99	4.38

남편(‘매우 그렇다’: 18.4%, ‘그렇다’: 51.7%, 5점 척도: 3.82)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질문화(T.V, 컴퓨터 보급 등)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남편은 ‘매우 그렇다’ 25.3%, ‘그렇다’ 48.3%, 5점 척도 3.90을 보여주는데 비해, 아내는 ‘매우 그렇다’ 11.5%, ‘그렇다’ 41.4%, 5점 척도 3.39로 남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

지금까지 국가적 상황에 대한 국제결혼 부부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출신국가에 대해 경제적 수준이 낮고, 좋은 직장이 부족하며,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 하고, 사회복지수준이 낮으며, 물질문화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아내 본인이 본국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것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내의 경우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에 대해선 매우 낮은 수준(5점 척도 2.84)을 보이고 있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국제결혼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선 선행 연구에서 이주자 유형별(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로 살펴본 결과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본국상황의 모든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는 일부 문항에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병두·이경자, 2010). 한편 아내의 이주 목적국인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송출국인 결혼이주자의 본국이 대부분 저개발국가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간 경제수준의 차이, 좋은 직장 부족, 낮은 사회복지 수준과 같은 본국의 상황이 국제 이주의 배출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주 목적국인 한국에 대한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5점 척도 값으로 ‘물질문화가 앞선 나라’ 4.38,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4.10, ‘사회복지수준이 높은 나라’ 3.99,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3.91,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 3.61로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한국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6).

### 3) 이주 목적국과 송출국에 대한 부부의 인지

국제결혼 부부의 상대국가에 대한 인지 정도는 결혼 후 이들의 삶과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낮은 곳으로 이주를 계획한 사람에게 이주할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하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가에 따라 이주 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의 아내의 국가적, 지역적 배경이나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의 획득 정도에 따라 결혼 후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내가 겪는 문화적 갈등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회천 등(2011)은 ‘도시 지역 다문화 가정의 부부관계 고찰을 위한 질적 연구’에서 부부 갈등 원인으로 문화 및 생활방식, 자녀교육 방식, 성격의 차이, 배려 및 존중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 성현란(2011)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은 남편의 이문화 이해를 비롯한 남편관련 변인에 의한 문화적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전 상대국가에 대한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아주 많이 알았음’ 2.3%, ‘많이 알았음’ 20.7%이고, ‘조금 알았음’ 29.9%, ‘전혀 몰랐음’ 2.3%를 나타내고 있다. 아내의 경우 ‘많이 알았음’ 29.9%, ‘조금 알았음’ 31.0%, ‘전혀 몰랐음’ 2.3%로 부부 모두 부정적인 응답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점 척도 값도 각각 2.91, 2.94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국제결혼의 경우 아내나 남편 모두 상대국가나, 상대 배우자에 대

해 미처 알기도 전에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특히 행정기관의 주선이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사례 2]** 2009년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8명의 농촌 총각이 예천군청의 주선으로 베트남 하이퐁에 사는 8명의 아가씨들과 만나, 만났지 3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됨 (KBS1, ‘러브인 아시아’ - 베트남 특집 1편, 『8인의 신부』 2012.10.31.).

**[사례 3]** 네팔(파르바트) 출신의 푸르자 시타 (Purja Sita)는 네팔에서 한국 사람이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낸 광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다음날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해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후 2시간 얘기하고 결혼하게 됨(김태원, 2012, 159-161).

결혼이주 여성의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과 송출국인 아내의 출신국가에 대한 인지 방식을 보면, 남편의 경우 언론과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55.2%로 가장 높고, 다음 친지나 주변사람 24.1%, 상대국을 방문한 경험 9.2%, 문화매체 4.6% 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 영화·음악·드라마와 같은 문화매체를 통해 알았다는 비율이 32.2%로 가장 높고, 대중매체 24.1%, 친지나 주변사람 23.0%, 그 나라 제품과 기업 11.5% 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드라마를 선호하며,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류 스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결혼 이주 전 아내의 미시적 배경

이주자가 이주를 결정하기 전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지역에서의 개인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여건은 이주의 원인 또는 동기에 있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며(최병두·송주연, 2009, 299), 지역적 배경 또한 이주 후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사회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점에서 먼저 이주하기 전 이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중도시 35.6%, 소도시 27.6%, 대도시 18.4%, 농촌 13.8% 순으로 대부분이 소도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의 경우 생활의 경제적 개선을 포함하여 행복한 가정을 통한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하며(홍달아가·채옥희, 2007), 본국 가족의 생계부담을 줄이는

표 7. 이주 목적국과 송출국에 대한 부부의 인지 정도

단위: 명,(%)

상대국가에 대한 인지	응답자수 (명)	아주 많이 알았음	많이 알았음	보통임	조금 알았음	전혀 몰랐음	5점척도
남편	87 (100.0)	2 (2.3)	18 (20.7)	39 (44.8)	26 (29.9)	2 (2.3)	2.91
결혼이주자(아내)	87 (100.0)	.	26 (29.9)	32 (36.8)	27 (31.0)	2 (2.3)	2.94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표 8. 이주 목적국과 송출국에 대한 인지 방식

단위: 명,(%)

인지방식	응답자 수	학교교육	대중매체	문화매체	제품과 기업	친지나 주변사람	이전에 방문한 경험	기타
송출국인 아내나라(남편)	87 (100.0)	2 (2.3)	48 (55.2)	4 (4.6)	2 (2.3)	21 (24.1)	8 (9.2)	2 (2.3)
이주 목적국인 한국 (아내)	87 (100.0)	6 (6.9)	21 (24.1)	28 (32.2)	10 (11.5)	20 (23.0)	2 (2.3)	.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한편,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본국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이주를 결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주 전 이들의 직업은 본국에서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취업이나 경력의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국제결혼 여성이주자들의 이주 전 직업을 보면 단순생산직이 26.4%로 가장 높고, 서비스직, 전문직이 13.8%로 같은 수준이며, 농어업 11.5%, 단순사무직 9.2%, 판매 유통직, 학생 6.9%, 무직 11.5%로 나타났다. 이주 전 직업과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국제결혼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이주자들의 본국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관한 문항에서 ‘그저 그러함’이 58.6%로 가장 높고, ‘다소 빈곤함’과 ‘아주 빈곤함’이 각각 23.0%, 4.6%를 나타내는 반면, 풍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에 불과하다. 더불어 남편들이 인식하는 부인의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평균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평균이다’ 37.9%, ‘평균보다 약간 높다’ 2.3%로 약 40%에 불과한 반면, 평균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0%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내와 남편의 인식

을 비교해 보면 아내는 ‘그저 그러함’이 58.6%인데 비해 남편은 ‘평균이다’가 37.9%에 불과한 반면, 아내의 ‘다소 빈곤함’ 23.0%에 비해 남편의 ‘평균보다 약간 낮다’는 46.0%, 아내의 ‘아주 빈곤함’ 4.6%에 비해 남편의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13.8%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9).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두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 5. 국제결혼 부부의 공간인지와 적응

#### 1) 지역사회 및 가정생활 적응

한사람의 생애는 정주와 이동을 반복하며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사회,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을 실현시켜나간다(김태원, 2012). 외국인 이주자들은 정착한 장소에서 새롭게 주어진 여러 환경적 요소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최병두, 2010). 한 개인이 기존의 문화에서 나와 새로운 문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적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의미로서의 적응은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

표 9. 아내의 미시적 배경

단위: 명, (%)

이주 전 거주 지역	합계	대도시 (100만명 이상)		중도시 (5만명~100만명)		소도시 (2만명~5만명)		농촌 (2만명 미만)		산촌 (2만명 미만)		어촌 (2만명 미만)	
	87 (100.0)	16 (18.4)	31 (35.6)	24 (27.6)	12 (13.8)	2 (2.3)	2 (2.3)						
이주 전 직업	합계	농어업	단순 생산직	단순 사무직	전문직	판매 유통직	서비스직	학생	무직				
	87 (100.0)	10 (11.5)	23 (26.4)	8 (9.2)	12 (13.8)	6 (6.9)	12 (13.8)	6 (6.9)	10 (11.5)				
이주 전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합계	아주 빈곤함	다소 빈곤함	그저 그러함	다소 풍족함	아주 풍족함	5점 척도						
	87 (100.0)	4 (4.6)	20 (23.0)	51 (58.6)	12 (13.8)	.	2.82						
남편의 부인 본국 가족 소득에 대한 인식	합계	평균보다 훨씬 낮다	평균보다 약간 낮다	평균이다	평균보다 약간 높다	평균보다 훨씬 높다	5점 척도						
	87 (100.0)	12 (13.8)	40 (46.0)	33 (37.9)	2 (2.3)	.	2.29						

주: 아주 빈곤함=1점, 다소 빈곤함=2점, 그저 그러함=3점, 다소 풍족함=4, 아주 풍족함=5점 부여.

평균보다 훨씬 낮다=1, 평균보다 약간 낮다=2, 평균이다=3, 평균보다 약간 높다=4, 평균보다 훨씬 높다=5점 부여.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표 10. 지역의 외부 환경 적응(아내)

단위: 명, (%)

지역사회 적응	응답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척도
기후 및 자연환경에 잘 적응한다	87 (100.0)	14 (16.1)	41 (47.1)	26 (29.9)	6 (6.9)	.	3.72
주거시설 및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한다	87 (100.0)	8 (9.2)	47 (54.0)	26 (29.9)	4 (4.6)	2 (2.3)	3.63
소비 및 여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87 (100.0)	2 (2.3)	36 (41.4)	31 (35.6)	16 (18.4)	2 (2.3)	3.23
행정기관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87 (100.0)	2 (2.3)	24 (27.6)	26 (29.9)	33 (37.9)	2 (2.3)	2.90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87 (100.0)	4 (4.6)	24 (27.6)	35 (40.2)	19 (21.8)	5 (5.7)	3.03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나 조건과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이재민·황선영,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적응 또는 활용해야 할 요소들로 기후 등의 자연환경, 주거시설이나 주변 환경, 생활에 필요한 소비 및 여가시설이용, 행정기관 이용, 긴급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료시설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지역의 기후 및 자연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 주거시설 및 주변 환경, 소비 및 여가시설 이용, 의료기관 이용, 행정기관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보아 기후를 비롯한 자연환경요소들은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만 하는 요소들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대체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점 척도 2.90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행정기관 이용의 경우,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복잡한 민원서류나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은 한국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표 10).

결혼이주자의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집안일, 가족생활문화 등 일상생활적응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 4.6%, ‘그렇다’ 41.4%,

‘보통이다’ 32.2%로 ‘그렇지 않다’ 19.5%, ‘전혀 그렇지 않다’ 2.3%의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1).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사례는 형제가 국제결혼을 한 경우로 형은 한국계 중국인과 결혼을 했고, 동생은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로 한국계 중국인은 가족들과 의사소통도 잘되고 시댁 가족들과도 잘 지내는 반면 중국인과 결혼한 동생의 경우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데다 문화적 차이로 시댁식구들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4]** 시어머니께서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 하시어서 주택에 사는 동서보고 모시라고 했으나 두 사람 다 같이 살기를 거부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동서가 중국 사람이라 시어머니와 동서는 말도 통하지 않고, 동서네 집에는 중국에서 온 동서들 가족(친정엄마, 남동생)들이 있어서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동서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식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자기가 꼭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실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모시고 산다고 했다(한국계 중국인, 2002년 결혼, 자녀 2, 대졸).

표 11. 가정생활 적응(아내)

단위: 명, (%)

가정생활 적응	응답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척도
가족들과 의사소통 잘됨	87 (100.0)	8 (9.2)	40 (46.0)	28 (32.2)	9 (10.3)	2 (2.3)	3.49
집안일 어렵지 않음	87 (100.0)	8 (9.2)	32 (36.8)	28 (32.2)	15 (17.2)	4 (4.6)	3.29
가족생활 문화에 잘 적응	87 (100.0)	.	50 (57.5)	24 (27.6)	9 (10.3)	4 (4.6)	3.38
일상생활에 잘 적응	87 (100.0)	4 (4.6)	36 (41.4)	28 (32.2)	17 (19.5)	2 (2.3)	3.2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사례 5]** 전부인과의 사이에 난 딸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힘들다. 나를 엄마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남편의 누나(딸의 고모)도 딸의 편을 들어주고, 내가 도망 갈까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도시에 가서 취직을 하거나 도망을 간다는 것이다.(베트남 출신, 26세, 고졸, 2006년 결혼, 딸 2, 농촌거주)

일반적으로 이민자에게 있어 생활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 이는 생활만족도에 따라 정착한 국가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비교적 이주해 온 나라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학력, 소득 수준 등의 개인적 요인, 문화정체성, 문화적응, 가치관 등의 문화적 요인, 공공서비스이용 등의 사회적 요인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원서진·송인옥, 2011).

**2) 부부 언어 능력**

언어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로 국제결혼 부부가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언어를 통한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남편의 아내나라 언어

능력은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유순 등(2012)의 연구에서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이 문화/식생활차이, 언어소통문제, 자녀교육문제, 성격차이/부부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확대가족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원서진·송인옥, 2011).

이런 점에서 남편의 아내나라 언어의 구사능력을 조사해 본 결과 말하기의 문항에서는 ‘매우 능숙하다’와 ‘약간 잘하는 편이다’가 각각 9.2%, 20.7%이며, ‘매우 서툴다’와 ‘약간 서툰 편이다’는 각각 26.4%와 25.3%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5점 척도 값도 2.6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듣기 문항에서는 ‘매우 능숙하다’ 9.2%, ‘약간 잘 하는 편이다’ 27.6%, ‘매우 서툴다’ 20.7%, ‘약간 서툰 편이다’ 26.4%, 5점 척도 값은 2.78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읽기의 문항에서는 ‘매우 서툴다’와 ‘약간 서툰 편이다’가 각각 37.9%와 29.9%로 전체 응답자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기의 경우 ‘서툴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분석해 보면 남편들의 아내나라 언어 실력은 듣기가 가장 높고, 다음 말하기, 읽기, 쓰기 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편들의 아내나라 언어 실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표 12). 이것은 남편들의 낮은 학력수준(전문대 포함 대졸이 11.5%)과도 관련이 있는 것



표 12. 아내 나라의 언어 능력(남편)

단위: 명,(%)

아내나라의 언어 능력	응답자수	매우 능숙하다	약간 잘 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툰다	5점척도
말하기	87 (100.0)	8 (9.2)	18 (20.7)	16 (18.4)	22 (25.3)	23 (26.4)	2.61
듣기	87 (100.0)	8 (9.2)	24 (27.6)	14 (16.1)	23 (26.4)	18 (20.7)	2.78
읽기	87 (100.0)	2 (2.3)	18 (20.7)	8 (9.2)	26 (29.9)	33 (37.9)	2.20
쓰기	87 (100.0)	.	14 (16.1)	10 (11.5)	28 (32.2)	35 (40.2)	2.03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으로 보여지며, 대부분의 남편들(전체 응답자의 약 84%)이 부인과 대화할 때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9.2%에 불과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듣기 문항의 경우 ‘보통이다’가 39.1%로 가장 높고,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이 각각 20.7%, 16.1%이며, 5점 척도 값은 3.28로 한국어 구사 능력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 말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음’ 18.4%, ‘어렵지 않음’ 16.1%, ‘보통’ 34.5%로 ‘조금 어려움’ 20.7%, ‘매우 어려움’ 10.3% 보다 높으며, 5점 척도 값은 3.11로 조사되었다. 다음 읽기의 경우 ‘보통’이 34.5%로 가장 높고, ‘매우 어려움’과 ‘조금 어려움’이 각각 11.5%, 24.1%로 나타났다. ‘어렵지 않음’과 ‘전혀 어렵지 않음’은

11.5%와 16.1%로, 5점 척도 값은 2.96을 보여주고 있다. 쓰기는 5점 척도 값이 2.56으로 언어 능력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남편들의 아내나라 언어 능력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표 13).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남편들이 아내의 문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아내들이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남편에 비해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학력수준이 높고, 남편들은 국제결혼을 위해 송출국(아내나라)에 대한 사전준비 없이 결혼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으로의 이주를 위해 한국어를 미리 습득하거나, 또는 한국계중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13. 한국어 구사능력(아내)

단위: 명,(%)

한국어 구사능력	응답자수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보통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무응답	5점 척도
말하기	87 (100.0)	9 (10.3)	18 (20.7)	30 (34.5)	14 (16.1)	16 (18.4)	.	3.11
듣기	87 (100.0)	5 (5.7)	16 (18.4)	34 (39.1)	14 (16.1)	18 (20.7)	.	3.28
읽기	87 (100.0)	10 (11.5)	21 (24.1)	30 (34.5)	10 (11.5)	14 (16.1)	2 (2.3)	2.96
쓰기	87 (100.0)	25 (28.7)	20 (23.0)	22 (25.3)	8 (9.2)	12 (13.8)	.	2.56

주: 매우어려움=1, 조금어려움=2, 보통=3, 어렵지않음=4, 전혀어렵지않음=5점부여, 무응답 제외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3) 부부관계 만족도

한편 남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면 5점 척도 값으로 ‘부부사이의 친밀감’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부부의 성생활’ 3.66, ‘아내가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3.59, ‘아내의 가사노동 부담’ 3.54, ‘아내의 소비성향’ 3.50, ‘부부간의 대화정도’ 3.39,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3.18 순으로, 부부간의 대화정도에 대한 문항에서 ‘대체로 불만이다’라고 부정적인 응답이 13.8%로 나타났으며,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의 문항에서도 ‘대체로 불만이다’와 ‘매우 불만이다’가 16.1%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5점 척도 3.69로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하며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러한 응답결과는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국제결혼 부부들은 현재 대부분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로, 모든 국제결혼 부부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연구가 모든 국제결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공간인지와 부부 적응

여기서는 결혼이주자의 지리적 행동이나 공간적 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 공간 인지와 부부 적응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공간적 인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음’, ‘버스나 지하철 노선’,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의 위치’, ‘행정기관의 위치’, ‘초·중·고 학교의 위치’와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지리적 행동이나 공간인 지에 비해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 등과 같은 지리적 지식과 지역학습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도시와 행정구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표 15). 이러한 응답결과는 결혼이주를 위해 사전에 한국의 위치나 이주경로를 파악하거나 이주과정을 통해 인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이러한 결혼이주자의 지리적 행동 및 공간 인지를 설문조사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두 지역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대도시와 행정구역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는 대구 지역은 5점 척도 값으로 3.44를 보여주고 있으나

표 14.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남편)

단위: 명,(%)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5점 척도
아내가 나를 믿고 이해하는 정도	87 (100.0)	8 (9.2)	40 (46.0)	34 (39.1)	5 (5.7)	.	3.59
부부사이의 친밀감	87 (100.0)	10 (11.5)	46 (52.9)	29 (33.3)	2 (2.3)	.	3.74
부부의 성생활	87 (100.0)	4 (4.6)	53 (60.9)	26 (29.9)	4 (4.6)	.	3.66
아내의 가사노동부담	87 (100.0)	6 (6.9)	42 (48.3)	32 (36.8)	7 (8.0)	.	3.54
아내의 소비성향	87 (100.0)	14 (16.1)	30 (34.5)	28 (32.2)	15 (17.2)	.	3.50
부부간의 대화정도	87 (100.0)	4 (4.6)	38 (43.7)	33 (37.9)	12 (13.8)	.	3.39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87 (100.0)	2 (2.3)	26 (29.9)	45 (51.7)	12 (13.8)	2 (2.3)	3.18
부부관계 전반	87 (100.0)	8 (9.2)	48 (55.2)	27 (31.0)	4 (4.6)	.	3.69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표 15. 지리적 행동 및 공간 인지

단위: 명,(%)

	응답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척도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음	87 (100.0)	10 (11.5)	48 (55.2)	15 (17.2)	12 (13.8)	2 (2.3)	3.60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알고 있음	87 (100.0)	6 (6.9)	28 (32.2)	33 (37.9)	16 (18.4)	4 (4.6)	3.18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의 위치를 알고 있음	87 (100.0)	12 (13.8)	44 (50.6)	19 (21.8)	10 (11.5)	2 (2.3)	3.62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의 위치를 알고 있음	87 (100.0)	10 (11.5)	34 (39.1)	37 (42.5)	2 (2.3)	4 (4.6)	3.51
학교(초·중·고등학교)의 위치를 알고 있음	87 (100.0)	8 (9.2)	32 (36.8)	35 (40.2)	8 (9.2)	4 (4.6)	3.37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를 알고 있음	87 (100.0)	6 (6.9)	32 (36.8)	41 (47.1)	6 (6.9)	2 (2.3)	3.39
한국의 대도시와 행정구역들을 알고 있음	87 (100.0)	4 (4.6)	26 (29.9)	42 (48.3)	11 (12.6)	4 (4.6)	3.08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알고 있음	87 (100.0)	18 (20.7)	49 (56.3)	17 (19.5)	2 (2.3)	1 (1.1)	3.93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알고 있음	87 (100.0)	24 (27.6)	43 (49.4)	14 (16.1)	4 (4.6)	2 (2.3)	3.95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경북지역은 2.72로 두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표 16). 그러나 한국의 위치나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는 두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는 대구 3.93, 경북 4.00으로 경북지역이 오히려 높은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한국의 대도시나

행정구역보다도 한국의 위치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로가 이주자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자의 지리적 행동 및 공간 인지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한국계 중국인, 일본, 캄

표 16. 결혼이주자의 지리적 행동 및 공간 인지(지역별)

단위: 명,(%)

지리적 행동이나 공간적 인지	5점 척도	
	대구	경북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음	3.62	3.56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알고 있음	3.07	3.38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의 위치를 알고 있음	3.55	3.75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의 위치를 알고 있음	3.51	3.50
학교(초·중·고등학교)의 위치를 알고 있음	3.40	3.3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를 알고 있음	3.47	3.25
한국의 대도시와 행정구역들을 알고 있음	3.44	2.72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알고 있음	4.02	3.78
본국으로 되돌아 가는 경로를 알고 있음	3.93	4.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표 17. 결혼이주자의 지리적 행동 및 공간 인지(국적별)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응답자수	5점 척도	응답자수	5점 척도	응답자수	5점 척도	응답자수	5점 척도	응답자수	5점 척도	응답자수	5점 척도	응답자수	5점 척도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음	13	3.31	18	4.00	28	3.36	2	4.00	12	3.83	12	4.00	2	1.00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알고 있음	13	3.46	18	3.56	28	2.86	2	3.00	12	3.83	12	2.83	2	1.00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의 위치를 알고 있음	13	3.77	18	3.56	28	3.71	2	4.00	12	3.83	12	3.50	2	1.00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의 위치를 알고 있음	13	3.31	18	3.44	28	3.57	2	3.00	12	4.17	12	3.50	2	1.00
학교(초·중·고등학교)의 위치를 알고 있음	13	3.15	18	3.56	28	3.21	2	3.00	12	4.17	12	3.33	2	1.0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를 알고 있음	13	3.31	18	3.56	28	3.07	2	3.00	12	3.83	12	4.00	2	1.00
한국의 대도시와 행정구역들을 알고 있음	13	3.69	18	3.22	28	2.79	2	4.00	12	3.08	12	3.25	2	4.00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알고 있음	13	4.38	18	4.11	28	3.61	2	4.00	12	4.33	12	3.50	2	4.00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알고 있음	13	4.46	18	4.22	28	3.50	2	4.00	12	4.50	12	4.00	2	1.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보디아가 4.00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몽골 순을 보이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 노선에 관한 문항에서는 필리핀 출신이 가장 높고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출신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특히 몽골은 1.00으로 최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수가 적어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표 17). 이와 같이 지리적 행동이나 공간 인지와 관련한 인식에 대해 국적별로 본 전체적인 경향은 필리핀,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이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결혼 부부의 공간인지와 부부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송출국인

표 18.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남편)

단위: 명

결혼 전 부인 나라에 대한 인지 정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전체	5점 척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이주 많이 알았음	0	0	2	0	0	2	3.00
많이 알았음	2	6	8	2	0	18	3.44
보통임	6	20	11	2	0	39	3.77
조금 알았음	0	20	6	0	0	26	3.77
전혀 몰랐음	0	2	0	0	0	2	4.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표 19. 아내의 가정생활 적응(5점 척도 값)

결혼 이주전 한국에 대한 인지 수준	가정생활 적응				
	가족들과 의사소통	집안일	자녀 양육	가족생활 문화적응	일상생활
아주 많이 알았음	.	.	.	.	.
많이 알았음	3.85	4.08	3.15	3.54	3.38
보통임	3.50	2.88	3.38	3.19	3.56
조금 알았음	3.19	3.11	3.33	3.41	2.89
전혀 몰랐음	3.00	2.00	4.00	4.00	2.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아내나라에 대한 남편의 인지정도와 부부관계 전반에 관한 만족도 및 이주 목적국인 한국에 대한 결혼이주자의 인지정도와 가정생활 적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혼 전 남편의 부인 나라에 대한 인지 정도와 부부관계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5점 척도 값으로 ‘전혀 몰랐음’이 4.00으로 가장 높고 ‘아주 많이 알았음’이 3.00으로 오히려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표 18).

아내의 경우도 이주 전 유입국에 대한 인지정도와 가정생활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집안일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유입국에 대한 인지 정도와 가정생활 적응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 6. 요약 및 결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세계적 차원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불균등발전에 따른 출신국가 및 지역과 목적국가 및 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이들 간 관계 등의 거시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하여 지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접근방법 등의 한계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과 국제이주 배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국제결혼 부부 대상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초국적 이주배경에 대한 인지,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공간인지 및 부부 관계 만족도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이주배경과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제결혼 부부들이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그리고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과 같은 세계적 사항에 대해 매우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적 배경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남편이 아내 출신국가에 대해 경제적 수준이 낮고, 좋은 직장이 부족하며,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사회복지 수준이 낮으며, 물질문화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아내 본인이 본국상황에 대해 인식 하는 것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내의 이주 목적국인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송출국인 결혼이주자의 본국이 대부분 저개발국가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간 경제수준의 차이, 좋은 직장 부족, 낮은 사회복지수준과 같은 본국의 상황이 국제 이주의 배출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주 목적국과 송출국에 대한 사전 인지도 조사에서는 부부 모두 대체로 낮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지 방식에서는 남편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 아내의 경우는 드라마, 영화와 같은 문화매체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국제이주의 미시적 배경으로 결혼 전 아내의 거주 지역은 중도시, 소도시, 대도시 농촌 순으로 소도시 이상의 도시지역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빈곤하다는 응답이 풍족하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들이 아내의 본국의 가정수준에 대해 평균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국제결혼 부부 아내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과 주거 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선 대체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기관 이용과 의료시설이용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 및 여가 시설이용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결혼이주자의 지리적 행동이나 공간적 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에서의 지리적 행동이나 공간인지에 비해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 등과 같은 지리적 지식과 지역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구와 경북 두 지역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대도시와 행정구역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는 두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적별로 본 전체적인 경향은 필리핀,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이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공간인지와 부부 적응을 살펴본 결과 결혼 전 남편의 부인 나라에 대한 인지 정도와 부부관계 만족도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도 이주 전 이주 목적국에 대한 인지정도과 가정생활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집안일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목적국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정생활 적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부부를 대상으로 초국적 이주배경에 대한 인지와 적응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부 가운데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한계를 넘어, 결혼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결혼 부부를 동

시에 고찰하였다. 즉, 국제결혼부부들의 초국적 이주와 관련한 거시적·미시적 배경과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은 물론 여성결혼이주자와 결혼한 남성들의 부부관계 적응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국제결혼 부부들이 부부간의 대화부족과 같은 부부관계 문제, 언어소통의 문제, 확대가족과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부부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비롯해 새롭게 형성되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문헌

- 강기정·변미희, 2009,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관련 변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23-126.
- 구차순·박순자, 2012, 국제결혼 남성의 결혼해체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45-74.
- 김근식·장윤정, 2009, 국제결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223-248.
- 김동엽, 2010,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2), 31-72.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 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두섭, 2012,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와 결혼안정성: 국제결혼개방성 가설의 검증, 한국인구학, 35(1), 1-30.
- 김민경, 2009, 국제결혼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 김민경, 201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15.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 159-193.
- 김민정, 2007,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5-34.
- 김민정·신성만, 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11-737.
- 김수정·김은이, 2008,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43(0), 385-428.
- 김순규·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9(3), 63-106.
- 김오남·김경신·이정화, 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4.
- 김유순·오영숙·안현화, 2012,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생활 어려움과 적응전략,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349-378.
- 김윤태·설동훈, 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중소연구*, 29(3), 143-188.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원,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 *경인문화사*.
- 김한근, 2009,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1), 83-120.
- 김한나·박혜원,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행동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11(0), 264-264.
- 김현미·김민정·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122-155.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0), 219-254.
- 김희주·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0), 33-66.
- 노충래·강현주·최민지, 2010,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한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105-134.
- 박경환, 2009, 광주광역시 초국적 다문화주의의 지리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0), 91-108.
- 박동성, 2008, 일본 과소지역에서의 “국제가족”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대응: 야마가타현의 사례분석, *한국문화인류학*, 41(1), 129-165.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 박순호·빙팜(BinhPham)·카미야히로우(Kamiya Hiroo), 2012,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결혼 전·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3), 268-282.
- 박순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1), 89-109.
- 박은경, 2009,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이근수, 2009,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적응 -여성결혼이민자의 사례-, *한국행정논집*, 21(2), 407-431.
- 박주희·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심리학회지*, 17(2), 219-239.
- 송유진,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여성의 혼인이주 원인 및 의사결정과정,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81-595.

- 신희천·최진아·김혜숙·이주연, 2011, 도시 지역 다문화 가정의 부부관계 고찰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3(2), 299-322.
- 안영진, 2009,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44-363.
- 원서진·송인옥, 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95-113.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규삼, 2000,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 국적 가정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무·김진숙, 2009, 국제결혼 남성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 이동수·송승숙, 2012,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31(2), 135-172.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용균·이현옥, 2012, 이주자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2), 59-74.
- 이재민·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0), 61-84.
- 임석희, 2009a, 한국의 초국적 결혼이주와 신민족성의 지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393-408.
- 임석희, 2009b,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64-387.
- 임형백, 2007,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4(2), 471-491.
- 장한나·윤기찬, 2010,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로컬거너스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24(2), 121-155.
- 정현주,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109-121.
- 정천석·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조민경·김렬, 2011,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91.
- 조현미, 2009, 일본인 국제결혼여성의 혼성적 정체성, 일본어문학, 45, 521-544.
- 채옥희, 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 이민자 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채옥희·홍달아기·송복희, 2011,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출국 전 한국가정생활 교육 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27-338.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35-654.
- 최병두·송주연, 2009, 외국인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195-318.
- 최병두, 2010,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리적 지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39-63.
- 최병두·이경자, 2010, 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64-88.
- 최송식·장익진·김현숙, 2008,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22(4), 217-246.
- 최재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여성결혼이주와 결혼중개업체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1-14.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25-254.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한윤희·신원선·김지나, 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식생활 적응요인 및 식행동 연구, Comparative Korean



- Studies, 19(1), 115-159.
- 홍달아기·채옥희, 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 학지*, 16(4), 733-744.
- 황달기, 1993, 일본 농가후계자의 ‘국제결혼’ - 그 실상과 문제점, *일본학보* 3(0), 467-491.
- Davin, D., 2007, Marriage Migration in China and 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6(50), 83-95.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Blackwell.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389-401.

(접수: 2013.10.14, 수정: 2013.11.18, 채택: 2013.11.22)